오동진의 씨네카페

강우석 감독 신작 '한반도' 일본과 가상전쟁 그려

"일본, 한판 붙자!"

동해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둘러싼 한일간의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는 가운데 가상이긴 하더라도 일본과의 군사 전쟁을 그린 영화가 완성돼 일반에게 곧 개봉된다.

화제의 영화는 강우석 감독의 신작 '한반도'. 이 '한반도'는 이미 화해 분위기로 돌아선 남북한 정상이 힘을 합쳐 한국의 자주권을 또 한번 침해하려는 일본의 네오콘들과 일촉즉발의 군사적 대결을 벌인다는 이야기.

가까운 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영화는 남북한이 마침내 경의선 철도를 개통시킴으로써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를 정착시키는 데 성공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새로운 '거국 한반도'의 출현을 바라지 않는 일본 정부는 과거 한일합방이 이루어지기 전, 고종 황제가 경의선 철도의 소유권을 일본에 영구 양도하기로 합의했다는 계약서를 내세우며 남북한 평화무드를 저지하고 나선다.

영화의 하이라이트는 남북 정상 모두 이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자 일본 정부가 자위대 군함을 파견하고 이에 맞서 우리 해군 역시 대규모 병력을 출동시킴으로써 한일 양국간 해상에서 전쟁 직전의 상황이 조성되는 것. 북한군은 우리 측을 지원하고 나선다.

'한반도'는 '실미도'와 '공공의 적2'에 이은 강우석 감독의 흥행 야심작으로 지난 해 말부터 시작돼 최근 모든 촬영을 끝내고 후반작업까지 거의 마친 상태. 당초 극장가 최고 성수기인 6월에 개봉될 예정이었으나 독일 월드컵 기간과 겹쳐 그 뒤로 미룬 상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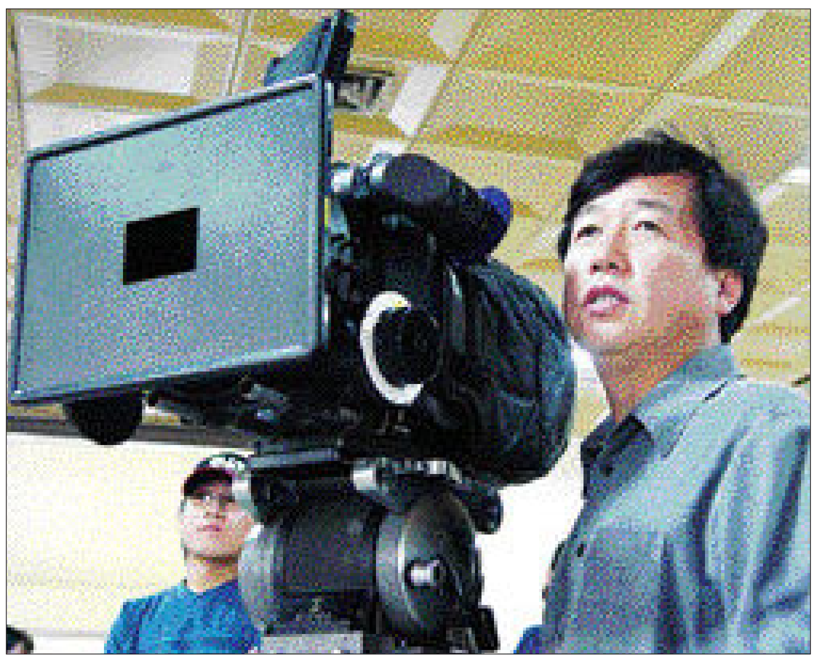
하지만 최근 한일간에 벌어진 일련의 외교 전쟁을 고려해 개봉이 훨씬 앞당겨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성수기 블록버스터 영화답게 국내 영화사상 최대의 제작비가 들어간 '한반도'는 총제작비만 180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투자배급은 '왕의 남자'를 담당했던 시네마서비스와 CJ엔터테인먼트가 공동으로 진행하며 제작은 강우석 감독이 직접 설립한 영화사 K&J가 맡았다.

남한 대통령 역은 안성기가, 국무총리 역은 문성근, 국정원 요원은 차인표가, 그리고 한일 역사의 숨겨진 비밀을 파헤치는 재야사학자 역은 조재현이 맡는 등 초호화 캐스팅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영화속 영화 장면 가운데 명성황후 시해장면이 압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명성황후 역은 강수연이 맡아 열연했다.

/ 영화전문기자 ohdjin@hotmail.com



'한반도'는 '실미도'와 '공공의 적2'에 이은 강우석 감독의 흥행 야심작으로 지난 해 말부터 시작돼 최근 모든 촬영을 끝내고 후반작업까지 거의 마친 상태다.

조광희 씨 '너는 내 운명' 만든 영화사 '봄' 제작본부장 맡아

영화계로 간 변호사

영화계 법률자문 변호사로 활동해 온 조광희 변호사가 아예 영화판으로 자리를 옮긴다. '너는 내 운명' '스캔들 - 조선남녀상열지사' 등을 만든 영화사 '봄'의 제작본부장직을 맡게 된 것. 변호사가 영화제작자가 되기는 조 변호사가 처음이다. 그만큼 그가 갖고 있는 영화 공력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조광희하면 국내 영화계에서 꽤나 유명한 인물이다. 한결법무법인 소속인 그는 지난 6~7년간 영화계 전문 법률자문으로 이름을 날려 왔다. 그가 맡았던 영화계 내의 '사건'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예를 들어 '그때 그사람들'의 상영금지가처분소송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그때 그사람들'은 지난해 상영 당시 일부 장면을 놓고 박정희 전대통령의 아들인 박지만씨와 상영금지가처분 소송을 벌인 적이 있다.

그는 현재,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열린우리당 강금실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대변인을 맡고 있기도 하다.

- 계속해서 '대변인'을 하게 되는 건 아닌가?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 예정대로 5월 말이 되면 영화사 '봄'의 제작본부장이 된다.

- 근데 왜 꼭 영화사 '봄'인가?

▲몇 년 전부터 같이 일하자는 제의를 받아왔다.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해온 회사다.

-'봄'도, 당신의 전문 식견을 빌려 요즘 다른 많은 영화사들이 그러는 것처럼 '우회상장'을 시도하려는 것이 아니고?

▲'봄'이 그런 일을 하려 한다면 아마 말리거나 관둘 것 같다.

-그 '우회상장' 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부정적으로 본다. 영화사도 기업이니까 자본을 키우려는 방법은 여러가지로 모색할 수 있으나 기업이란 건 자연스럽게 성장할 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 왜 요즘 그런 일들이 잦다고 생각하나?

▲사람들이 그러더라. 마치 한때 바람이 불었던 IT 붐과도 같은 거라고. 아마도 곧 정리되지 않을까 싶다. 영화산업이 고도로 산업화되는 과정 속에서 생기는 약간의 부작용이라고 생각한다.

- 요즘의 영화계를 어떻게 보나.

▲글쎄…. 예전에는 영화사업이라고 하면 영화 쪽에 방점이 찍혀져 있었는데 요즘엔 사업 쪽에 방점이 찍히고 있는 것 같다. 그건 분명해 보인다. 그래서 일종의 창조성의 위기 같은 것도 자꾸 얘기되는 것 같고.

- 법정영화를 만들어 보겠다는 꿈은 아닌가?

▲'폴 뉴먼의 심판'이라는 영화는 아주 재미있게 봤다. 훌륭한 영화였다.

-그렇게도 영화가 좋은가?

▲음…. 좋다.(웃음) 그보다는 변호사 일이 지겨워졌다.

/오동진 영화전문기자 ohdjin@hotmail.com

영화계는 지금

연극 '주공행장'도 영화화

'왕의 남자' 제작사 이글픽쳐스 판권 사들여

국내 최고 흥행기록을 세운 영화 '왕의 남자'의 제작사 이글픽쳐스(대표 정진완)가 차기작으로 또 한편의 사극영화를 낙점, 다시 한번의 새로운 기록에 도전한다.

이글픽쳐스가 개발중인 새로운 사극은 극단 미추가 지난 3월 극단창립 20주년을 기념해 무대에 올린 '주공행장'이란 작품. '왕의 남자'에 이어 또 다시 연극작품을 영화로 만든다는 점도 눈에 띈다.

영화계에서는 '왕의 남자'의 1천만 관객을 의식해 무려 7개 회사가 이 연극의 판권을 사들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극단 미추측이 최근 '왕의 남자'의 성공을 고려해 더 나은 제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글픽쳐스에게 영화판권을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권가는 3천만 원. 이글픽쳐스는 '왕의 남자'를 제작하기 전 연극 '이(爾)'의 판권을 2천만 원에 사들였었다.

연극 '주공행장'은 조선시대의 금주령에 얽힌 얘기. 조선시대 각종 실록에 의하면 역병이 돌거나 흉년이 들면 임금의 명으로 전국에 금주령이 내려졌다는 것. '주공행장'은 이러한 상황을 통해 당시의 정치권력과 인간사를 들추어 내고 더 나아가 지금 시대와의 연결점들을 찾아나가는 내용이다.

이글픽쳐스는 현재 이 연극을 영화 시나리오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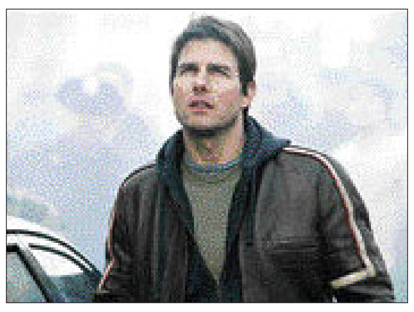
/오동진 영화전문기자 ohdjin@hotmail.com

해외 영화계 이슈

톰 크루즈 딸 이름 '수리' 구설수

영화배우 톰 크루즈(**사진**)와 케이티 홈스의 첫 딸 이름을 두고 화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두 사람은 최근 대변인을 통해 아기의 이름을 '수리'로 지었다고 밝히면서, 고대 유대어로 '공주'를 뜻하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그런가하면 페르시아어로는 '장미', 산스크리트어로는 '태양'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에서는 크루즈가 자신의 첫아기 이름을 하필이면 왜 '수리'로 지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최근 CNN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고대 유대어로는 '공주'를 뜻하는지는 몰라도, 요즘에는 '꺼져'란 의미의 속어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한 문화평론가는 "마돈나 등 해외 유명스타들이 유대교의 신비주의 분파인 카발라 신자가 된 이후 할리우드 등 연예계 종사자들 사이에서 구약시대의 이름을 아기 이름으로 붙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유대인도 아니고 사이언톨로지 신자인 크루즈가 딸 이름을 수리로 선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크루즈 이외에도 아기 이름을 독특하게 지은 스타들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사람이 기네스 펠트로와 영국 록밴드 콜드플레이의 리더 크리스 마틴 부부. 두 사람은 첫딸의 이름을 '애플(사과)'로 지은 데 이어 최근 출산한 아들의 이름은 구약에 등장하는 '모세'로 붙였다. 그런가 하면 브루스 윌리스와 드미 무어는 세 딸의 이름을 루머, 탈룰라, 스카우트 등으로 특이하게 지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스타들은 왜 아기 이름을 희한하게 짓나'란 제목의 최근 기사에서 "대중의 관심을 끌려는 욕망의 또 다른 반영이자, 자신들은 일반인과 다른 특별한 존재이며 내 아기 역시 특별하다는 무의식의 발로"라고 분석했다.

/오동진 영화전문기자 ohdjin@hotmail.com